

A Daily Bread

날짜: 5786년, 10월 3일 (2025년 12월 23일)

토라 롬: Vayigash (나아가다)

주제: The Shock of Truth (진리를 직면한 충격적 침묵)

창세기 45장 3절은 성경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의 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가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하매,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요셉이 겪으신 생애의 절정일 뿐 아니라, 가족 화해라는 단일적인 한 차원을 넘어 드러난 진리와의 전형적인 만남입니다. 미드라시, 탈무드, 죄하르와 같은 예후다의 고전 전통의 가르침은 이 침묵을 하나의 신성한 현상으로 해석하며, 네짜림 갠신서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두려움·변화의 가르침을 반향합니다.

미드라시는 요셉이 스스로를 드러낸 계시를 비난 없는 책망으로 이해합니다. 베레쉬트 라바 93:10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심판의 날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책망의 날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목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뿐이다. 미드라시는 바로 이 점에서 진리의 본질을 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자기방어적 변명들은 무너집니다. 형제들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고, 그들 내면의 도덕성의 노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중재 없는 물리적 현실 앞에서 그들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변명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미드라시는 만일 요셉이라는 한 인간 앞에서도 형제들이 그들이 야아콥의 뒤에서 저지를 악행들로 인하여 말문을 잃었다면, 장차 여호와께서 인간을 그의 절대 진리이신 토라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이 중엄 할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탈무드는 이 구절을 한 층 깊게 조명하며 요셉의 질문,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라고 질문한 그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하기가 4b에서 랍비들은 사람에게 있을 최종적인 심판은 타인의 고발과 고소에 따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의 질문은 도덕적 초점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한 범죄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야아콥에게 전한 거짓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버린 정황에 의하여 아버지 야아콥에게 입힌 상처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문제의 초점의 재구성은 형제들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서 침묵은 죄를 단순히 외면하는 회피가 아니라, 죄의 행위들로 인하여 번졌던 파장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며, 그 판결의 순간인 것입니다.

조하르(Zohar)는 이 장면을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조하르 1:93b-94a): 요셉은 언약의 진리가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통로인 *예소드(**תְּוֵידָה**, Yesod 중생, 기반)*를 상징한다. 역사의 전반에서 요셉은 열방의 옷, 열방의 언어, 열방의 역할 아래 감추어져 있다. 그가 “아니 요셉(**נֹאֶן יַעֲזֹב**)”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조하르는 이를 내적 본질의 폭로로 이해합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한 것은 요셉의 권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그 요셉을

A Daily Bread

통하여 드러난 진리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곧, 요셉 형제들의 공포는 뒤늦게 깨달은 인식에서 오는 영적인 불일치, 곧 너무 늦게 알아 봄으로 밭상한 공포였습니다. 진리의 계시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그 죄를 지속해서 저지르게 했던 영적인 장님, 맹목 자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의 질문에 포함된 “아버지의 생존 여부”의 문제는 성경에 입각하여 신중히 검토하면, 그 뜻의 깊이를 한층 더 분별하게 됩니다. 미드라시와 죄하르에서는 요셉이 이미 야아콤이 살아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질문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살아 계신 것에 대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언약의 생존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형제 간의 배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나샤마(얼,정신)곧 언약의 연속적 주재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경점은 온전한 화해란 감정적 재결합의 세계를 넘어서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언약안에서 그 아버지의 육신에 여전히 살아 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누가복음 24 장 36–48 절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부활 후 여호슈아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 장면에서도 은폐 뒤의 자각, 자각 이전의 두려움, 그리고 계시를 통해 일어 났었던 행위들이 재구성되는 과거가 드러납니다. 이 갱신서 기록은 모쉐로 기록하게 하신 요셉의 배신과 회복의 사건들의 전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대로 반향한다는 핵심 사실입니다. 계시는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화해와 새롭게 갱신된 승고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의 기반된 영적인 흐름의 전개 —어두움을 쫓아 낼 때에, 진리는 먼저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연이어 치유한다—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45 장 3 절에서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드러난 진리의 실재 앞에서 말문을 막게하며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그 공허를 충만으로 전환시키는 침묵의 시간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말 표현 속에는 라카밈 (*רָקְמִים* 자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이 질문은 언약적 생명이 지속되는 관계에는, 회개 (*תְשׁוּבָה* 테슈봐)와 회복 (*תִּיקְוָה* 티쿤)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심판, 진리 그리고 구속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숙지력을 얻게 해 줍니다: 자각은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바로 그 자각은 뒤돌아가 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샬롬!